강정일당-성리학적 남녀평등론자

박 현 숙*

1. 서론
2. 천품동일론
3. 교육평등론
4. 강정일당의 문학
5. 결론

* 인하대 강사

국문초록

조선시대의 양반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조차 자신들이 지은 글이 세간에 떠도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문학은 한 두 편이 남아 있을 뿐 문집의 형태로 전하는 것은 매우 드물었다. 이 글은 성리학적 이념이 경직화 현상을 보이던 조선후기 여성들의 문집이 다수 출간될 수 있었던 이유와 여성 자각화 과정의 내재적 동인을 강정일당의 글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 가학을 통해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양반가 여성들은 남녀동권의식이 강했는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여성들이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획득된 것이다.

조선시대의 남녀차별적 요소 중 강정일당이 가장 부당하게 인식한 것은 여성에 대한 교육적 차별이었다. 조선시대의 공교육은 남성의 전유물이었고 여성들은 가학이나 독학 혹은 남편이 글 읽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학문에 눈뜰 수 있었다. 강정일당 역시 이러한 경로를 통해 성리학을 학습하면서 여성을 교육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선인의 뜻이 아니니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셋째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강정일당 문학은 다른 여성들의 그것과는 달리 성리학적 이념에 기반한 재도론적 특성을 보였다. 그의 문학의 이러한 특성은 여성문학에 대한 남성들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내게 되고 이는 여성문집 출간의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인간평등론에 입각한 여성근대화 운동의 내재적 동인으로 성리학을 학습한 양반여성들의 자각과 권리의식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여성의 자각화 과정이 반드시 탈유교화의 과정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핵심어 : 성리학, 재도론, 남녀동권론, 교육, 권리의식, 문집, 자각화 과정

1. 서론

성리학을 국시로 세워진 조선의 모든 것(국가 제도, 행동규범, 이상적 인간형 등)은 성리학적 질서의 실현으로 귀착된다. 조선시대 여성의 삶 역시 '성리학적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여성'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통제되었다. 조선이라는 국가가 요구한 이상적 여성의 삶은 "여성은 남자의 가르침을 수종하여 그 일을 돕은 자"라는 공자발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여성의 일생은 "삼종지도"로 요약되고 삶의 공간은 가내(家內)로 한정되었다[1]. 그런데 "1898년 9월 서울 북촌의 양반부인 400여 명이 모여 '남녀동권(男女同權)'을 주장하는 〈여권통문(女權通文)〉을 반포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고종황제에게 관립여학교 설립을 청원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여학교인 순성여학교를 설립하였으며, 또한 최초의 여성단체인 찬양회를 조직하였다."고 한다[2].

삶의 공간이 가정 내로 한정되어 평생을 담장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억누르고 살아가도록 교육받아온 조선조의 양반부인들이 어떻게 400여 명이나 모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위계적 가족질서를 고수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 속에서 삼종지도를 묵수하며 아버지, 남편, 자식에게 매여 평생을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양반여성들이 어떻게 '남녀동권'을 주장하게 되었으며 그 사상적 기반은 무엇이었을까?

양반여성들이 사회를 향해 최초로 요구한 것이 왜 '여학교설립'이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물론 인간평등권 실현을 전제로 하는 여성근대화 운동의 내재적 태동을 실학이 발전하던 18~19세기 중엽으로 보고, 19세기 중엽 이후 서세(西勢)

1) 『공자가어』 6권, 「본명해」 26, 『한문대계』, 26(富山房), p.17.
2) 박용옥, 「여성근대화 운동」, 한국사연구회 편, 『한국사연구입문』, 제2판(지식산업사, 1998), p.515.

의 충격에 대응하려는 새로운 사상체계인 동학사상, 개화사상, 위정척사사상, 여성들의 천주교신앙운동 등의 영향으로 인한 여성의 자각화 과정을 설명한 연구서들이 많이 있다[3]. 기존의 이러한 연구들은 '가치혼미적인 유교이념'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체계를 형성하려는 이들의 주체적인 의지가 여성의 자각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4].

그러나 '남녀동권'을 주장하는 여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여성사립학교였던 순성여학교의 교과과정은 『천자문』, 『동몽선습』, 『소학』 등의 유교과정과 『태서신서』를 통한 역사교육 및 재봉틀을 사용한 실기교육이 전부였다[5]. 이는 유교적 교양을 갖춘 여성을 양성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이지 '가치혼미적인 유교이념'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기에 알맞은 교과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지극히 서구적인 가치관으로 보이는 '남녀동권'을 주장하는 양반여성들이 어째서 기존의 유교적 교과목을 위주로 하는 학교설립을 청원하여 이를 관철하였는가? 이는 적어도 북촌의 양반여성들이 '유교이념'과 '남녀동권'을 대립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유교적 가치관을 벗어나야 남녀동권이 실현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성의 자각화 과정을 촉발한 내재적 동인이 몇몇 선구자들에 의한 계몽화의 과정이나 서구사상의 유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선후기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여성학자의 등장과 관련시켜 설명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 글은 이를 해명하기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살았던 양반여성 강정일당(1772~1832)의 글을 통해 여성의식의 자각화 과정과 그 이념적 토대를 구명하고자 한다.

---

3) 김미란, 「조선후기 여류문학의 실학적 특징」, 『동방학지』, 84호(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4).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여성의 역사』(청년사, 2002).
박용옥, 앞의 글.

4) 박용옥, 위의 글, p.514.

5)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앞의 글, p.261.

2. 천품동일론

주자(朱子, 1130~1200)에 의하면 천지 사이는 이(理)와 기(氣)의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理)는 형이상자(形而上者)로 사물생성의 본체이며 기(氣)는 형이하자(形而下者)로 사물을 생성하는 질료가 된다. 주자는 사람과 사물이 생겨날 때 이(理)를 품수받아 성(性)을 갖게 되고 기(氣)를 품수받아 형(形)을 갖게 된다고 서술하여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존재는 이(理)와 기(氣)로부터 생성된 성(性)과 형(形)의 두 요소에 의해 이원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6].

> 천지 사이에 이(理)와 기(氣)가 있다. 이(理)는 형이상의 도(道)요 기(氣)는 형이하의 기(器)이다. 만물이 생성될 때에 갖추게 된다. 이런 까닭에 사람과 만물이 생겨날 때에 반드시 이 이(理)를 품수받은 연후에 성(性)을 갖게 되고 또 이 기(氣)를 받은 연후에 형체를 갖게 된다[7].

이(理)와 기(氣)로 이루어진 천지만물이 차별되는 것은 이(理)는 일원(一原)이지만 기(氣)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르고 통한 기를 얻으면 사람이 되고 치우치고 막힌 기를 얻으면 사물이 된다. 마찬가지 이치로 사람 역시 기질의 차이에 따라 대략 네 가지 등급으로 나뉘게 된다.

>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태어나면서 아는 자가 상등이요, 배워서 아는 자가 다음이요, 불통하여 배우는 자가 또 그 다음이니 불통한데도 배우지 않으면 백성으로서 하등이 된다.
>
> …… 사람의 기질이 같지 않음이 대략 이 네 가지 등급이 있음을 말씀한 것이다[8].

---

6) 이기동 저, 정용선 역, 『동양삼국의 주자학』(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5), p.177.

7) 『주자전서』 권58, 「答黃道夫」
天地之間 有理有氣 理也者 形而上之道也 氣也者 形而下之器也 生物之具也 是以人物之生 必稟此理然後有性 必稟此氣然後有形

인간은 기질의 차이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지지만 이 기질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학문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 물론 기질의 차이에 따라 노력의 정도는 달라지지만 중단 없이 나아가면 그 공을 이룸은 성인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게 된다. 이러한 성리학적 인성론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이(理)를 품수 받아 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과 학문을 통해서 기질의 차이를 극복하고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가적 학문의 첫 단계는 뜻을 세우는 '입지(立志)'에서 시작되는데 이 단계에서 학문을 하려는 자라면 누구나 성인이 되려는 것으로 뜻을 세워야 한다고 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주장하였다. 요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들의 물음은 자신을 끊임없이 확충하여 성인이 되려는 성리학자들의 노력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남성유학자들의 입장은 여성을 대할 때면 종종 돌변한다. 남성들은 항상 '여성편성론'을 말하면서 여성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회의를 공공연히 내보인다.

> 부인은 타고난 성품이 편협하고 바탕이 유약하다. 성품이 편협하니 의리를 깨우치기 어렵고, 바탕이 유약하니 선을 강제하기 어렵다[9].

여성은 타고난 성품이 편협하고 바탕이 유약하여 남자들과 달리 의리를 깨우칠 수 없고 선을 강제할 수 없다. 성리학자들은 남성에게는 타고난 기질이 편협할수록 남보다 더욱 노력하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 해야한다고 독려하면서도 여성들에게는 쉽게 한계를 긋고 여성이 그 한계를 넘

---

8) 『논어』「계씨」 16.
孔子曰 生而知之者는 上也 學而知之者 次也 困而學之 又其次也 困而不學 民斯爲下矣
…… 言人之氣質不同 大約有此四等

9) 정범조, 『해좌집』「규감서」 권21(서경출판사, 1996), p.434.
婦人性褊而質柔 性褊則難於喩義 質柔則難於彊善 必有以感發鼓動之也

어설 수 없다고 단정한다. 남성유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타고난 기질에 따른 한계를 지닌 여성은 남성과 달리 성인이 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성인이 될 수 없는 여성은 남성에 의해서 바로잡아져야 하는 대상이 된다[10]. 따라서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하고 어떤 일도 전제(專制)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그러나 강정일당은 남성유학자들의 이러한 여성차별론적 시각을 무시하고 성리학적 인성론을 그대로 여성에게 준용시켜 여성과 남성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 비록 부인들이라도 큰 실천과 업적이 있으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1]

강정일당이 남편에게 여성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물은 것은 자기 확신이 결여된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또한 남편이 여성은 성인이 될 수 없다고 하면 그 의견에 따르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부인도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는 단정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반문의 어법은 강정일당이 남편과 남성에게 여성은 성인이 될 수 없다는 당시 그들의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던 강정일당은 현실적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 성인이 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사람의 성품은 본래 모두 착하니	人性本皆善
각기 최선을 다하면 성인이 되네	盡之爲聖人
도덕을 갈구하면 도덕이 이루어지리니	欲仁仁在此
진리를 밝혀서 스스로 성실을 다하리	明理以誠身[12]

10) 여성에 대한 공자의 발언과 이를 잇는 율곡의 「刑內」장은 남성들의 그러한 시각을 대변한 것이다. 형은 바로잡는다는 의미이고 내는 여성을 의미한다.
11) 이영춘, 『강정일당』, p.90.
12) 위의 글, 〈性善〉, p.51.

사람은 누구나 최선을 다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면, 여성도 자신의 노력에 따라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강정일당의 이러한 생각은 그녀만의 독창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었다. 임윤지당(1721~1793)을 비롯한 성리학적 소양을 조금이라도 갖춘 조선후기 양반가 여성들은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였다고 할 수 있다.[13] 조선후기 양반가 여성들의 이러한 남녀의 가치에 대한 동등 의식이 쌓여 결국에는 양반여성들의 남녀동권 선언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이들 양반여성들의 '남녀동권의식'의 이념적 기반은 개화사상이나 서구사상이 아니라 성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자각화 과정의 내재적 동인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논거점이 된다. 따라서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아래와 같은 평가는 재론을 요구한다.

> 조선에서 남성과 대비되는 전체 여성은 인식되지 않았으며, 신분제도 속에 분화된 하위 주체로서의 각 여성층은 가족 관계 하에서 인식될 뿐 독자적인 개성을 가친 주체로 인식될 여지가 없었다[14].

조선후기 양반가 여성들은 공자를 비롯한 남성유학자들의 요구인 "여성은 자신의 의견을 오로지 할 수 없고, 아버지 남편 자식을 따라야 하는" 존재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눈을 떴고, 이러한 의식을 여성끼리 공유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북촌 양반여성 400여명의 단체행동은 매우 돌출된 행동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3. 교육평등론

조선시대 남성들이 성균관, 향교, 서원, 서당, 개인교습 등 공교육기관과

13) 졸고, 「임윤지당론」, 『여성문학연구』, 9호(예림기획, 2003), pp.132~153.
14) 전경옥 외 3인, 『한국여성정치사회사』(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4), p.40.

사교육 기관을 통해 체계적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여성은 가정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선의 사적인 교육만이 허용되었다. 조선시대 공교육 기관에서 여성을 교육시키기 위한 과정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부인은 마땅히 서, 사기, 논어, 소학, 여사서를 읽어 그 뜻을 통하고 백가의 성과 조상의 족보와 역대의 나라 이름과 성현을 이름만 통하면 된다. 헛되이 풍월과 가사를 지어 밖에 전파해서는 안 된다[15].

조선시대의 여성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잘 받을 필요도 없었고, 혹 여성이 글을 안다고 하여도 자신이 글을 안다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어서도 안 되었다. 조선시대 남성들이 여성의 교육을 이처럼 제한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공자의 여성에 대한 아래와 같은 발언에서 기인한다.

> 여자는 남성의 가르침을 수종(隨從)하여 그 일을 돕는 자이다. 때문에 여자는 모든 일을 전제로 할 의리는 없고 오직 세 가지를 좇는 도리가 있을 뿐이다.……(중략) 여자는 교령이 규문 밖을 나가지 않고 하는 일은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 있다. 분상(奔喪)을 해도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며, 무슨 일이고 독단으로 처리하지 못하며 행동하는 일도 혼자도 결정하지 못하며 무슨 일이라도 남자에게 알린 후에 움직이며, 무슨 말이라도 경험해본 뒤에 말한다[16].

공자에 의하면 여성은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존재이다. 여성은 규문 안에 살면서 가속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수행할 뿐이다.

---

15) 이덕무, 「사소절」
婦人當略讀書史論語小學女四書 通其義 識百家姓 先世譜系 歷代國號 聖賢名字而已 不可浪作詩詞 傳播外間

16) 『공자가어』, 앞의 글, p.17.
女子者順男子之教而長其理者也 是故無專制之義 而有三從之道 (중략) 教令不出於閨門 事在供酒食而已 無閫外之非儀也 不越境而奔喪 事無擅爲 行無獨成 參知而後動 可驗而後言

이처럼 제한된 여성의 역할과 축소된 삶의 공간에서 일생을 마쳐야 하는 여자에게 천하의 일을 걱정하고 '수기치인(修己治人)'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적 교육은 애시당초 필요치 않은 일이라고 남성유학자들에게는 생각되었을 것이다. 성리학적 이념으로 통치되는 이상사회를 조선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조선시대 남성유학자들 역시 공자의 이러한 생각을 이어받아 공부는 남성만의 일이고, 여성교육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독서 강의는 장부의 일이다. 부인은 조석과 한서에 따라 가족을 공양하고 제사와 손님을 받들어야 하는 일이 있으니 어느 결에 책을 대하여 풍송할 수 있으리요. 고금의 역사에 통하고 예의를 논하는 부인들이 반드시 몸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그 폐해가 무궁하였음을 많이 볼 수 있다[17].

남성들은 성실하게 학문을 수행해야 하지만, 여성이 학문을 하면 폐해가 무궁해진다는 인식 때문에 조선시대 내내 공교육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교육은 가학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강정일당은 여성교육에 대한 당시의 이러한 관행을 직설적으로 비판하였다.

> 부모된 사람들이 세속의 구구한 말을 듣고 딸을 공부시키는 것을 큰 금기로 여기기 때문에 부녀자들 중에 전혀 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매우 가소로운 일입니다[18].

강정일당은 "세속의 구구한 말을 믿고 딸을 교육시키는 것을 금기로 아는 것은 가소로운 것"이라고 하여 여성을 교육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조선시대의 교육적 관행을 직설적으로 비판하였다. 물론 강정일당이 남성

17) 『성호새설』 권3 상, 인사편 3, 친속 17.
18) 강정일당, 앞의 글, p.90.
爲父母者 信世俗之語 以敎女子讀書爲太忌 故婦女往往全不識義理 甚可笑也

과 동등한 공부를 요구하였다고 해서 여성의 삶의 공간이 갑자기 확장되거나, 유교적 예법을 벗어던지고 가정을 뛰쳐나가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순종적인 태도로 남성을 대하지도 않는다. 강정일당은 조선시대적 여성교육 관행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여성들과는 달리 자신이 공부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고[19] 자신의 남편에게 그날 공부한 것을 기록하여 자신에게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 매일 토론하신 것을 쪽지에 기록하여 보여주신다면 매우 고맙겠습니다[20].

강정일당이 아무리 교육을 받으려는 의지가 굳다고 하여도 공교육기관에 나아가 교육을 받을 수는 없었다. 마찬가지로 강정일당은 여성의 교육적 차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다른 여성들처럼 여성들에게 허용된 부분적인 교육만 받는 것을 수용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강정일당은 자신의 남편에게 그가 동료들과 토론한 것을 기록한 쪽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남편이 토론한 쪽지를 보고자 하는 것은 강정일당이 추구한 학문의 도달점이 부덕의 함양이라는 제한적 여성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정일당은 여성으로서 제한된 공간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과 여성에게서는 동학을 구할 수 없는 제약을 남편의 토론 쪽지를 보는 것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학문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내면서 강정일당은 자신의 학문의 목표를 남성들과 동등하게 설정하였다.

> 어떤 사람(호안정)이 물었다. "성인의 문하에 그 학도가 삼천 명이었지만, 유독 안자만이 학문을 좋아했다고 칭찬받았다. 대체로 詩書 六禮를 삼천 제자

19) 대부분의 양반가 여성들은 숨어서 공부하거나 자신이 글을 안다는 것을 숨기려고 노력한다.

20) 이영춘, 『강정일당』, p.86.
願以日日討論者 錄于片紙 下示則幸心幸心

가 모두 배워서 통달했다. 그런데도 안자 홀로 학문을 좋아한다고 칭찬받았으니 안자의 학문은 무엇인가?" 이천 선생이 대답했다. "그 학문이란 바로 성인에 도달하는 길이다."[21]

안자는 성인이 되기 위해 공부하였고 이 때문에 공자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성리학을 공부하는 남성들은 이를 본받아 성인이 되기 위해 공부하였고, 강정일당의 학문적 목표 역시 이들과 다르지 않았으니 그 궁극처는 성인이 되는 것에 있었다.

나이 서른에 비로소 공부를 시작하니	三十始課讀
학문의 방향을 종잡을 수 없네	於學迷西東
이제부터라도 모름지기 노력하면	及今須努力
거의 옛 성인과 같아지리라	庶幾古人同[22]
여생이 단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餘生只三日
부끄럽게도 성현이 되기로 한 기약을 저버렸네	慙負聖賢期
늘 증자를 사모하였으나	想慕曾夫子
이제는 자리를 바꾸고 죽을 때가 되었네	正終易簀時[23]

시집 와 남편의 공부를 뒷바라지하면서 나이 30에 학문을 시작한 강정일당은 학문을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학문의 목표를 오직 성인이 되는 것에 두었다. 강정일당이 여성이면서도 조선시대의 교육적 관행을 비판하고 당당하게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에게 학문을 금하는 것은 선현의 뜻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

21) 정이천, 『이정문집』 권7, 「안자소호하학론」
或問 聖人之門 其徒三千 獨稱顔子爲好學 夫詩書六禮 三千子非不習而通也 然則顔子所獨好者 何學也 學以至聖人之道也

22) 강정일당, 앞의 글, p.50.

23) 강정일당, 앞의 글, p.60.

> 사람이 학문을 하는 것은 나의 심이 성인의 심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그러므로 배우는 자는 반드시 먼저 통달한 이의 말에 의지하여 성인의 뜻을 구하고 성인의 뜻에 의지하여 천지의 이에 통달하여야 한다[24].

선현들이, 배우는 자는 학문을 통해서 성인의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조선시대의 남성들이 여성 교육을 금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선현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여성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되고, 여성이 사람이라면 조선시대에 여성의 교육을 금한 것은 선현의 뜻과는 어긋나는 것이 된다. 선현이 옳다면 과연 잘못은 누가 하고 있는가? 강정일당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하는 것을 굳이 숨기지 않았고 남성과 동등한 교과과정을 이수하려고 노력하였다. 공자를 비롯한 남성유학자들이 제한적인 여성교육을 통해 남성을 보조하는, 돕는 자로서의 여성을 양산하고자 했다면 강정일당은 학문을 통해 남성과 대등하게 서고자 하였다.

> 유교의 13경을 두루 읽으면서 깊이 침잠하고 연구하여 매번 홀로 앉아 읊조렸다. 여러 전적을 널리 보아서 고금의 정치변동을 손바닥처럼 밝게 알았다[25]

조선시대 여성들이 ≪소학≫, ≪열녀≫, ≪여교≫ 등을 읽고 여성적 덕성을 함양하는데 치중했다면 정일당은 유교 13경을 두루 읽었고, 바깥일에 해당하는 고금의 정치변동을 손바닥처럼 밝게 알았다.

> 밤늦어 잠잘 때까지 독서를 하며 연구할 계획입니다. 접 때 사서를 읽었으나, 맹자 뒷부분 3편은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끝낼 것입니다[26].

---

24) 『주문공문집』, 권42, 「답석자중」
人之所以爲學者 以吾之心未若聖人之心故也(중략) 故學者必因先達之言以求聖人之意 因聖人之意以達天地之理

25) 강정일당, 앞의 글, p.150.

조선시대 여성들이 길쌈 등의 가내사(家內事)를 처리하기 위해 밤을 새웠다면 강정일당은 밤새워 맹자와 주역을 읽고, 예학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은 남성과 소통하게 되었고(비롯 남편이나 누이의 학문적 열망을 이해하는 제한된 남성 뿐이지만) 바깥일을 말하게 되면서 '바깥일은 말하지 않는다'는 유교적 금기를 넘어서게 된다.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으려는 강정일당을 비롯한 조선후기 양반가 여성들의 욕구가 관립여학교 설립청원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성리학을 연구하며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천품을 갖고 있다는 여성들의 자각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강정일당의 문학[27]

이능화가 여성들의 한시를 "기녀의 시가 사족 첩실의 시 보다 낫고, 사족 첩실의 시가 사족부녀의 시보다 나으니 정감과 감발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논평한 이래로 여성한시의 특징은 주로 기녀나 소실들의 시에 나타나는 감정의 진솔함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28], 여성들에 의해 창작된 작품들은 '정한과 교화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하였다[29]. 그러나 정일당의 문학은 감정의 진솔함을 특징으로 하는 여타의 여성문학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강정일당의 문학은 입지, 낙도, 수양, 달관 등을 시화한 것으로 조선시대 문학의 주요 이념인 문이재

---

26) 이영춘, 『강정일당』, p.86.
中夜下帷之際 看字理會爲計矣 向讀四書 而孟子下三篇 尙未訖 然不久當訖

27) 졸고, 「임윤지당과 강정일당 문학의 사상적 기반」, 『한중인문학연구』, 제9집 (한중인문학회, 2002), pp.29~34의 논의를 재구성함.

28) 이능화 저, 김상억 역, 『조선여속고』(동문선, 1990), pp.408~409.

29) 이숙희, 「조선조 여성한문학사」, 김상홍 외 2인 편, 『한국문학사상사』(계명문화사, 1991), p.784.

도론(文以載道論)에 입각한 문학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강정일당의 시는 총 38수가 전하는데 그 중에서 사례와 송축(4수) 및 남편을 대신해서 지은 시(8수)를 제외한 시의 구체적 내용을 작품 목록과 함께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학문과 관련된 시
경차존고지일당운(敬次尊姑只一堂韻): 학문에 대한 입지
시과(始課): 학문의 시작
견서동피달(見書童被撻): 학동에게 학문에 힘쓸 것을 훈계
자려(自勵): 권학
정부자(呈夫子)-3수: 남편에게 학문을 권함
경정부자행가(敬呈夫子行駕): 남편 경계, 당부
면제동(勉諸童): 면학훈계

(2) 안빈낙도와 자족을 읊은 시
산가(山家): 안분자족
야좌(夜坐): 달관
탄원(坦園): 안분자족
객래(客來): 안빈낙도
제야우작(除夜偶作): 달관, 자경

(3) 수양과 수신의 뜻을 담은 시
성선(性善): 심성수양
제석감음(除夕感吟): 수신
병후(病後): 체인성명
우음(偶吟): 수양
독중용(讀中庸): 학문, 수양
제정초(除庭草): 수양
주경(主敬): 수양
탄원전로통호강장(坦園前路通乎康莊): 수양
성경음(誠敬吟): 수양

(4) 기타

시종선근진부(示從孫謹鎭婦): 훈계
시성규질(示誠圭姪): 훈계
청추선(聽秋蟬): 자연감흥
앙공부자(仰孔夫子): 공자찬양
임종시(臨終詩): 후회, 각오
근차왕구계흡연초운(謹次王舊戒吸煙草韻): 자경
우음(偶吟): 추모

강정일당의 한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시의 주제는 거의 대부분 학문에의 집념, 심성수양, 자신과 남들에 대한 도덕적 훈계, 안빈낙도의 생활, 자연 속의 관조, 달관과 체험 같은 도학적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음풍영월류에 속하는 한가한 서경시나, 애정과 이별, 연모 등을 노래한 서정시는 하나도 없다[30]. 정일당 문학의 이러한 특징은 화산 권우인(花山 權愚仁)의 평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 비록 부인이 지은 것이기는 하나 향수나 분가루 냄새가 없고, 초야에 은거한 학자의 뜻이 보이니 규중 여인들의 사랑타령이나 경치를 읊은 것은 비할 바가 아니었다.[31]

당시 대부분의 여성 한시작가들이 성리학적 문학의 범주 밖에서 사랑타령이나 하고 주변의 경치를 읊조렸던 것과는 달리 정일당의 시문학은 성리학적 문학관의 드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정일당의 시가 도학자들의 그것에 근접해 있음은 자연을 접하면서 경치가 아니라 이법을 체현하려 한 성인들의 경지를 따르고자 하는 심경을 읊은 아래의 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성리학적 세계인식에서 자연은

---

30) 이영춘, 앞의 글, p.40.

31) 위의 책, p.188.
雖婦人所作 而無香奩粉脂之氣 有山林藏脩之意 非慧闥才姬思懷詠物之比

도덕의 원천이다. 유자들은 자연에서 객관적인 법칙을 찾아내려 하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도덕적 근거를 확보하려 한다. 따라서 성리학자들이 힘쓰기를 주장한 '격물(格物)'의 목적 역시 객관사물을 인식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격물을 통해 인간의 내재적 천리를 회복하려는 데 있다[32]. 하늘을 나는 새와 연못에 뛰노는 물고기를 통해서 그들이 보는 것은 경치가 아니라 이치이다.

> 시에 솔개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 연못에서 뛰노네라고 하였는데 그 위아래로 살펴야함을 말한 것이다. …… 자사가 이 시를 인용하여 화육유행하여 위 아래로 밝게 들어난 것이 이 이치가 아님이 없음을 밝혔으니 이른바 뜻이 넓은 것이다. 그러나 그 소이연은 견문이 미칠 바가 아니니 이른바 은미하다는 것이다[33].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고 소리개는 하늘에서 난다. 물고기는 하늘에서 날지 않고 소리개는 연못에서 뛰지 않는다. 이는 소리개와 물고기를 통해서 타고난 자신의 분수에 맞춰 사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며 분수에 맞춰 사는 속에 넘치는 생동감을 드러낸 것이다. 주자가 소리개와 물고기를 통해 본 것은 경치가 아니라 이러한 이치이다. 강정일당도 일상적으로 접하는 자연의 풀 한 포기를 통해서도 옛 성현의 이러한 경지를 본받고자 하였다.

除庭草

작은 호미로 우거진 잡초를 뽑는데	小鋤理荒穢
시원스런 소나기가 먼지를 적시네	快雨灑塵埃

32) 候外廬 外, 박완식 역, 『송명이학사』(이론과 실천, 1993), p.39.

33) 원본비지 『중용』(명문당, 1984), p.34.
詩云鳶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 …… 子思 引此詩 以明化育流行 上下昭著 莫非此理之用 所謂費也 然其所以然者 則非見聞所及 所謂隱也

비록 주염계 선생의 뜻에 부끄러우나　　縱愧濂翁意
산속 모옥에 옛길이 열리네　　山茅舊逕開[34]

주염계가 자신이 거처하는 집에 잡초가 무성했는데도 뽑아내지 않자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으니 "내 뜻과 같은 것일세"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끊임없이 생성하는 대자연과 융합하여 일체가 되려는 그의 인생 포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한다[35]. 여성인 강정일당은 남성인 주염계처럼 무성한 잡초로 집이 황폐해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정일당은 잡초를 제거하면서 잡초를 놓아두고 본 주염계의 경지를 생각하며 주염계의 뜻에는 부끄럽다고 하였다. 그러나 "산속 모옥에 옛 길이 열리네"라는 결구에서 자신도 일상 속에서 옛 성현이 걸어간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표현하였다. 또한 성현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남성과 여성이 같은 경지에서 노닐 수 있다고 보았다.

贈安秀才駿甲兼示高信義

(전략)
책 속에 표준이 있으니　　卷中指南術
선현들의 자취를 역력히 보네　　歷歷在前修
힘써서 곧장 한 길로 달려가면　　勉哉駕直轡
도의 경지에서 함께 노니리　　道域偕優遊[36]

'책속의 표준을 보고 선현의 길을 곧장 달려가면 도의 경지에서 함께 노니리' 이는 책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는 남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 체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부위부강(夫爲婦綱)'의 불평등한 부부관계를 학문적 동반자로 재설정하게 되었을

34) 강정일당, 앞의 글, p.60.
35) 진래 지음, 안재호 역, 『송명이학사』(예문서원, 1997), p.78.
36) 위의 책, p.59.

것이고 이러한 체험이 쌓이면서, 강정일당의 남녀동권의식은 더욱 확고해 질 수 있었을 것이다. 강정일당은 이러한 시들을 통해 생활 속에서 이법을 체인하고 그것을 시화하는 능력이 여성이나 남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였고, 남성들의 긍정적 평가를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의 시세계가 이러했기에 그의 문집에 간행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구획된 한쪽에서 흔적도 없이 살다갈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이 조선후기에 이르러 문집을 통해서 자신이 존재했었음과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은 남성이나 여성이 다르지 않다'. '여성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성의 성취 역시 남성과 다를 바 없다.'

5. 결론

조선후기는 여성들의 문집이 다량으로 출간된 시기이다. 그간 여성문학이 남성문학과 대등하게 논의 될 수 없었던 것은 일단 그 양에 있어서 남아 있는 여성문학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입언수훈(立言垂訓)의 유가적 전통에 따라 남성들이 자신들의 문집 편찬에 적극적이었던 것과 달리 여성들이 남의 모범이 되는 것을 금기시 했던 조선시대의 풍토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문집을 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 전까지 문집을 갖고 있는 여성은 허난설헌이 유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가학(家學)으로나마 성리학적 소양을 기르게 된 여성들은 여성의 천품이 남성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저술하였기에 여성들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는 문집이 많이 간행되었다. 그 중 임윤지당과 강정일당이 성리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는데 이들은 천품동일설에 기반한 남녀동권의식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따라서 근대적 여성의 자각화 과정의 내재적 요인으로 성리학에 기반한 양반가 여성들의 천품동일설과 남녀동권의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정일당을 비롯한 여성들이 조선시대의 남녀차별적 관행을 가장 부당하게 인식한 것은 여성에 대한 교육적 차별이었다. 성인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별은 기질의 차이에 의한 것이고 보편적 이로서의 성을 부여받은 인간은 누구나 수양에 의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성리학적 교육관은 여성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였다. 여성들은 부덕을 갖춘 순종적 여성상, 남성을 돕는자라는 제한된 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 성인이 되려고 하였다. 여성들은 성인이 되려면 반드시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특히 강정일당은 '인간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을 근거로 여성에 대한 교육을 제한하는 조선시대의 관행을 비판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였다.

남편의 도움과 독학으로 성리학적 소양을 갖추게 된 강정일당 문학은 감상적인 기존 여성 문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도론적 문학관에 충실한 문학세계를 보여준다. 강정일당의 이러한 성취는 여성의 유사 남성되기라기 보다는 사회의 일원으로 남성과 대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한 여성이 이를 사회적으로 공인 받으려는 노력으로 평가해 주어야 한다. 강정일당 문학의 이러한 특성은 여성문학에 대한 조선시대 남성들의 부정적 평가를 불식하고 여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내게 된다.

결국 인간평등론에 입각한 여성근대화 운동의 내재적 동인으로 성리학을 학습한 양반여성들의 자각과 권리의식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여성의 자각화 과정이 반드시 탈유교화의 과정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임윤지당 연구에 이어 강정일당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였다.

□ 참고문헌

이영춘, 『강정일당』, 가람기획, 2002.
『공자가어』
『주자전서』
『논어』
『중용』
정범조, 『해좌집』, 서경출판사, 1996.
이기동 저, 전용선 역, 『동양삼국의 주자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5.
이능화 저, 김상억 역, 『조선여속고』, 동문선, 1990.
전경옥 외 3인, 『한국여성정치사회사』,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진래 저, 안재호 역, 『송명이학사』, 예문서원, 1997.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 연구실, 『우리여성의 역사』, 청년사, 2002.
후외려 외, 박완식 역, 『송명이학사』, 이론과 실천, 1993.
박용옥, 「여성근대화 운동」, 한국사연구회 편,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98.
박현숙, 「임윤지당론」, 『여성문학연구』, 제9호, 예림기획, 2003.
박현숙, 「임윤지당과 강정일당 문학의 사상적 기반」, 『한중인문학연구』, 제9호, 2002.
김미란, 「조선후기 여류문학의 실학적 특징」, 『동방학지』 84호, 연세대 국학자료원, 1994.

Abstract

Kang, Jung-il-dang, a Sung-Confucian who believes in the equality of both sexes

Park, Hyun-Sook

During the Lee dynasty, because of fact that leaving written forms of literal works to the public is considered as a negative conception among men as well as women, it is quite rare to find a collection of women writers' works so that there is one or two existing. Through analyzing literal works done by Kang, Jung-il-dang, this study aims to closely examine possible reasons how some collections of women writers' works were able to be published during the second period of Lee dynasty where the theory of Sung-Confucianism was in critical rigidity. Ironically, it is obtained by women as they regularly start studying Sung-Confucianism in accordance with the strong perception on the equal rights for both sexes. What the woman writer Kang, Jung-il-dang felt negatively against elements of gender discrimination in Lee Dynasty was discrimination on education. Therefore, she pointed out the unreasonableness of the fact that women had to be excluded from being educated and she then, demanded its adjustment while studying Sung-Confucianism. Some remarkable lit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of Jae Do Ron in her works elicited positive reputation about women literature from men, and they led the wider flow of publishment of a series of work-collections done by women writers. Consequently, although it is not always correspondent the process of women's self-consciousness to the process of de-Confucianism, through these facts, senses of self-conscious and rights of Yang-Ban women should possibl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part of

inherent motivation for the women-modernization movement based on the conception of equality for both sexes.

key words : Kang, Jung-il-dang, Yang-Ban, Sung-Confucianism, Jae Do Ron, the equal rights for both sexes, education

■위 논문은 2월 15일 투고되어, 3월 31일 심사 완료 후, 4월 1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